



이니텍(주)

053350 | KOSDAQ | 소프트웨어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4. 03. 28 |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78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 2층 백제홀

Executive Summary

▶ 이니텍은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그리고 감사 선임의 건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KT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이니텍이 이번에 선임하고자 하는 감사 후보자 전경혜는 KT 임직원 출신이며 현재 KT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니텍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비씨카드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KT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 그리고 내부통제 등의 문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니텍의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중립적인 감사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경혜 감사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제1호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50원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제3호	감사 선임의 건	찬성	반대
3-1	감사 전경혜 신규선임	찬성	반대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17기 (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예정 내용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그룹사 명칭 통일화를 위해 상담역 또는 고문을 자문역으로 변경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비상근 감사	전경혜	61.08.08	3	신규선임	KT 경기남부마케팅단 분당지사장	비씨카드 경영기획본부장 (CFO겸임)	충남대학교 계산통계학과

※ 이니텍은 201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승인하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의 보수 한도를 승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향후 보수 한도의 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없이 동일한 금액을 보수 한도로 설정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결의된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수 한도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2)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000,000,000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00,000,000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약 82억원 증가하여 총 자산은 약 974억원 수준, 부채는 약 3억원 증가하여 120억원 수준이며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자본 총계는 약 79억원 증가한 854억원 달성
- 개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약 76억원 증가해 508억원 수준이며, 영업이익은 약 11억원 증가한 48억원 달성. 금융수익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82억원 증가해 109억원 달성
- 결산배당은 주당 50원이며 배당 총액은 약 10억원 (전년도 무배당)
-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 제안

Discussion

Analysis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정관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의 건이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기존 상담역 및 고문의 명칭을 자문역으로 변경. 변경의 목적은 그룹사 명칭 통일화
- 단순 명칭 변경이므로 특별히 기업 가치와는 관련성이 없어 찬성 의견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1조(자문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그룹사 명칭 통일화

Analysis

▶ 단순 명칭 변경

이사회는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 상담역 또는 고문이라고 명칭되던 직위를 자문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변경의 목적은 그룹사 명칭 통일을 위함이며, 이니텍은 KT의 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룹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목적으로 한 단순 명칭 변경이므로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안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안함.

- 감사 후보자 전경혜는 이니텍이 속한 KT 기업 집단 출신으로, KT 마케팅단 지사장을 맡은 바 있음
- 전경혜 후보자는 현재 이니텍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비씨카드에서 경영기획본부장 및 CFO를 맡고 있음
- 최대주주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감사 후보자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니텍이 속한 KT를 둘러싼 내부 통제 및 횡령, 배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전경혜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 세부 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비상근 감사	전경혜	61.08.08	3	신규선임	KT 경기남부마케팅단 분당지사장	비씨카드 경영기획본부장 (CFO겸임)	충남대학교 계산통계학과

감사 독립성 확보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 감사 후보자 독립성에 대한 의문

이사회와 추천으로 이니텍의 신규 감사 후보자로 오른 전경혜는 KT 경기남부 마케팅단 분당지사장 출신으로 현재는 비씨카드에서 경영기획 본부장 및 CFO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니텍은 KT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며 이니텍의 최대주주인 에이치엔씨네트워크는 비씨카드의 100% 자회사이다. 그리고 비씨카드는 KT캐피탈을 통해 KT 자회사로 KT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결국 이니텍은 넓은 범위에서 KT의 자회사이며, 비씨카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원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외이사를 제외한 3명의 등기 사내이사는 모두 전현직 비씨카드 출신이다. 변준석 대표이사는 비씨카드 글로벌 사업단장 출신이고, 양태현 CFO는 비씨카드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정훈 비상근 경영자문은 현재 비씨카드 전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경혜 후보자가 감사로 선임될 경우 함께 감사직을 수행하게 될 정명훈 현 감사 역시 KT 전략투자담당, KT뮤직 전략기획실장, 비씨카드 재무관리팀장으로 재직하는 등 KT, 비씨카드 출신이다. 게다가 이니텍은 모회사인 비씨카드 및 KT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여러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 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이사회를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감사로서 KT 출신의 현직 비씨카드 임원이 선임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니텍이 속해 있는 KT는 부실한 내부 통제와 최고경영자의 횡령 배임 문제 등으로 상당한 홍역을 앓고 있다. KT 자회사인 KT ENS 대출 사기에 연루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모회사인 KT가 KT ENS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외면해 의도적으로 KT ENS를 법정관리 상태로 몰아갔다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논란을 일어나기도 했다. 게다가 KT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전 최고경영자인 KT 이석채 전 회장의 자산 혈값 매각과 비자금 조성, 부실 투자 등의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안팎의 문제로 인해 상당한 곤욕을 겪고 있다.

이니텍 역시 KT 기업집단의 일원이고 임원의 상당수가 KT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니텍의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경혜 감사 후보자의 신규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하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기능 보강을 권유하는 바이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